

2)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까요? 두려움은 우리의 행위를 어느 정도 제어하지만, 속마음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법이 있고 법 전문가들이 있고 재판이 벌어지고 감옥이 있는데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나이트'할까요? 비현실적일까요? 물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랑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당장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자기 사랑, 자기 열망이라는 죄가 용서받듯이 말입니다.

3) 예레미야의 이 문장은 “돌아서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연상시킵니다. 하늘나라가 오는 때는 구원의 순간입니다. 생명의 완성의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안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엉망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 용서가 아니라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을 조롱합니다. 새 언약의 날들이 오고 있다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멸되는 걸 보고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건 아닌가요?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너무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하늘나라가 왔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자기도 잘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건 아닐까요? 왜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의 날과 예수께서 선포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서 절감할 수 없을까요?

4) 죄를 용서받았다는 경험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가난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말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하늘나라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나 그와 비슷한 실존에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고 말입니다. 가난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 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요 1:14절이 증언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 서울샘터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4년 3월24일  
사순절 여섯째(종려)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17주



정 목사 마당에 피기 시작한 산수유꽃이다. 물 빠짐 등, 땅 상태가 좋지 않기도 하고 옮겨심기를 했기에 나무의 발육상태는 빈약하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편이다. 늦가을에 맺힌 꽃망울이 겨울을 견뎌내서 그런지, 일보다 꽃이 먼저 피는 나무의 꽃들은 대개 청순하다. 저 노란 꽃에서 럭비공처럼 생긴 작은 녹색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다시 붉은색으로 바뀐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꽃 현상은 신묘하다. (3월22일 오후에 찍은 사진)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의 신비와 역설이 있습니다.

\*찬송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창조와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위해/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이들에게 거리낌의 대상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종말에 그 비밀이 드러날 방식으로 부활 생명에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를 영혼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늘 새롭게 나아가도록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만 왕 의 - 왕 우 리 구 주 태 초 부 터 영 - 원 까 지  
영 광 영 광 누 리 소 서 - 아 - - 멘

## [ 알 리 는 말 씀 ]

- \* 예배 후에 설교를 주제로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 오늘 회장은 조르쥬 루오의 <시 구절(무게도 없이 부피도 없이 그는 간다)에 대한 삽화>입니다.
- \*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지난주일(3월17일) 헌금: 210,000원
  - 주일헌금 100,000원 통장헌금 110,000원
  -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 2024년 3, 4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3월31일	박재진 목사	윤혜정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기령 <아트컬리지5>
4월7일	정용섭 목사	김기범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기령 <시청각실>
4월14일	김동호 목사	김용성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유선 <시청각실>
4월21일	박재진 목사	이유선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김희란 <시청각실>
4월21일	김동호 목사	최선아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윤혜정 <아트컬리지5>

## 지난주일(3월17일) 설교 발췌

제목: 새 언약의 날 (렘 31:31-34)

1) 저는 사람이 실제로 공정하게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지만, 마음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겠습니다. 운전 중에 다툼과 갈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차선을 바꿀 때 옆 차가 조금 속도를 늦춰주면 되는데 안 늦춰준다고 불평하고, 끼어들기를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끼어들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끼어든다고 불평합니다. 속으로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아주 험할 때는 보복 운전까지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늘 주관의 작용하기에 공정은 관념이지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저자거리 표현에서 보듯이 이런 현상은 인간 삶 전반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간 문제가 근본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합니다.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141장 (호산나 호산나) 1,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141장 (호산나 호산나)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종려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모두 각자의 일상으로 흠여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향유를 손에 든 여자'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생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거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뜻에 매달린 채 한편으로는 허둥대며, 다른 한편으로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지 못하기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못했습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시 1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 - 여 자 비 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 비 를  
 베풀어 주소서 주 - - - 여 자 - 비 - 를 베풀어 주소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 룩 하 - 시 다 거 룩 하 - 시 다 거 룩 하 시 도 - 다  
 만 군 의 주 하 - 나 님 하 늘 과 땅 - 에 가 - 득 한 그 영 광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 의 이 름 으 로 오 시 는 이 - 여  
 찬 양 받 으 소 - 서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베델의 노래」 180장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 다 함께

Lina Sandell

Oscar Ahnfelt

1. 날마 다 숨쉬는 순간 마 다 내 앞 에 어 려운 일 보 네  
 2. 날마 다 주님 내 곁에 계 서 자 비 로 날 감싸 주 시 네  
 3. 인생 의 어 려운 순간 마 다 주 의 약 속 생 각 해 보 네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주님 앞 에 이 몸을 맡 길 때 슬 픔 없 네 두 려 움 없 네  
 주님 앞 에 이 몸을 맡 길 때 힘 주 시 네 위 로 주 시 네  
 내 맘 속 에 믿 음 잃 지 않 고 말 씀 속 에 위 로 를 얻 네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e-stow-ment, I've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주님 의 그 자 비 로 운 손 길 항 상 좋 은 것 을 주 시 네  
 어 린 나 를 품 에 안 으 시 사 항 상 평 안 함 을 주 시 고  
 주님 의 도 우 십 바 라 보 며 모 든 어 려 움 을 이 기 며

He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 Gives un- to each day what He deems best,

사 랑 으 로 아 픔 과 기 뻔 을 수 고 와 평 화 와 안 식 을  
 내가 살 아 숨 을 쉬 는 동 안 살 피 신 다 약 속 하 셸 다  
 흘 러 가 는 순 간 순 간 마 다 주님 약 속 새 겨 보 니 다

Lov-ing-ly its part of pain and plea-sure, Min-gling toil with peace and rest.

뒤쪽 1:12

말 씀 예 전

설교전 기도 ... 다 함께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문으로 허약해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진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채워주시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 50:4-9(전) ... 이기령 집사

성시 교독 시편 31:9-16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불쌍하게 여기소서 불쌍하게 여기소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 베푸소서  
 -나의 눈과 혼과 몸이 근심으로 지쳤으며 슬픔탄식 가득하여 하루하루 힘겹다네  
 죄악으로 약해진 몸 녹아버린 뼈마디들 원수들이 모욕하고 이웃들이 혐오하며  
 -친구들이 비난하고 행인들이 피해가네 죽은 사람 된 것처럼 기억에서 잊혀지고  
 사람들의 비방소리 사방에서 수군수군 원수들이 나를 치려 함께 모여 의논하네  
 -어느 누가 뭐라해도 나는 주님 의지하네 주님만이 내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네  
 주님이여 저의 앞날 주님 손에 맡기오니 원수들과 박해자들 손안에서 건지소서  
 -주의 얼굴 보이소서 종에게로 돌리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 하옵소서

둘째 말씀 빌립보서 2:5-11 ... 이기령 집사

\*셋째 말씀 마가복음 14:1-11 ... 이기령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향유를 손에 든 여자 ... 김동호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 다 함께